

SERMON 26 JUNE 2016

Galatian(갈라디아서) 5: 1, 13-25, Luke(누가복음) 9: 51-62

저의 할머니는 체구가 작으시고 그녀의 생애 동안 세상의 많은 변화를 경험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녀가 어렸을 때부터, 인간이 달에 착륙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사셨을 때, 스코틀랜드지역 글래스고 집에는 전기가 들어 오기 전 가스램프를 사용하셨을 때 입니다. 그녀에게 있어서 절대 변화지 않는 것 하나는 교회와 그녀의 믿음에 대한 헌신이었습니다. 그녀의 믿음이 그녀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그녀는 세상의 변화에 어리둥절했습니다 - 예를 들어 정원 뒤에 나무를 보러 온 사람이 여자인줄 알았습니다, 그녀에게 머리긴 젊은 남자는 머리 속에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 그녀는 강하게 어떤 것을 고수했습니다. 그것 중의 하나는 술은 악이라는 것입니다. 걱정 마십시오 예수님도 모든 다른 사람과 같이 포도주를 마셨다는 것 입니다. 저의 할머니는 금주를 선언하셨습니다. 저는 저희 할아버지가 이것을 어떻게 이겨 내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제가 아는 것은, 저의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30 년을 우리 가족과 살기 위해서 오셨을 때, 저의 어머니는 세리주 한 병을 정원헛간에 제초제와 함께 숨겨서 숫자를 줄였습니다. 술과 제초제들이 혼동되진 않았습니다. 저의 할머니, 그녀 세대의 많은 사람들은, 그 이후로 갈라디아서에 바울이 묘사한 육체의 죄에 대한

대단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종류의 도덕적인 엄격함이 또한 즐거움을 죄로 인도하는 느낌입니다. 이 무슨 곤경인지요! 이러한 태도는 저와 저의 남자형제가 휴가 기간 동안 스코틀랜드 헤브리디스제도 바깥쪽에 있는 섬에서 소파 뒤에 숨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 날 카드게임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게스트 하우스에 함께 계셨던 위프리 교도(스코틀랜드 독립 교회 가운데 1900 년 연합 장로교회와 함께 연합 독립 교회를 결성하는 데 참여하지 않은 교파의 교인) 목사님께 발각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불멸의 영혼들은 위험에 처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에서 자유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에 있는 기독교 공동체에게 쓴 그의 편지부터 듣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지난주 우리는 그 내용에 관해 선언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얼마나 넓고, 장벽을 허무는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의 이해인지요. 바울은 할례를 위한 법의 요구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고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는 그런 조건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원, 사랑하라는 계명, 또한 우리 인간이 잘

잊어버리는 성향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네 이웃사랑하기를 내 자신 같이 사랑하라.”는 것을 상기 시켜 주십니다. 그 다음 문장은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어느 것도 인성은 변화 시킬 수 없습니다. 그것은 때때로 마치 대중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우리 모두를 몰락 시킵니다. 우리가 도널드 트럼프로부터 듣는 말을 몇 년 전 미국 대통령 입후보자로부터 비슷한 말을 들은 듯 합니다. 호주 역시 아직까지도 이루어 지는 것 같습니다, 애디 맥가이어(Eddie McGuire) 여인을 비하 하는 것을 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지 농담으로 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유머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도덕적 경계가 도전으로 나타나는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화는 폭력으로 나타나고 두려움의 언어와 의심이 수락됩니다. 10 일전, 영국 노동당 의원, 조 콕스(Jo Cox)가 살해 되었습니다. 영국인들과 전 세계 사람들은 아주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단지 사회와 인간세상을 위해서 정말 열정적으로 믿는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비통해하는 그녀의 남편은 증오에 굴복하지 않고 그의 아이들이 증오에 의해 영향 받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진술하는

것을 듣는 것은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영국 국회에서 강력한 연설이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는 명예 훼손과 학대로 기울어 내려가는 것을 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동정과 선으로 가득한 말들은 우리를 연결 시켜주고 의기를 북돋우어 줍니다. 그런 말들은 바울이 적은 성령의 열매를 다루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법, 규칙들, 선행을 위한 틀을 줄 수도 있고 악행을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바울은 선은 성령으로부터 온다고 이야기 합니다.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너무 자주 어떤 폭력 행위들: 올란드에 총기 난사; 이웃을 돌보는 것에 관해서 나타내기 위한 젊은 엄마의 살해 들로 다시 불러집니다. 이러한 어두운 행동들로부터, 좋은 것들은 자생합니다.

우리는 오늘 누가복음에서 화가난말 들을 발견합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사마리아인들의 한 마을에서 비우호적인 반응에 부딪히게 됩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니이까?” 야고보와 요한이 묻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느끼는 것을 주목하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이 내용에 권력과 선택에 관해 많은 것이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 이내용 바로 전에, 요한은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 쫓는 것을 보고 그들과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라고 불평합니다. 예수님께서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라고 이야기 하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치유와 또는 좋은 영으로 행하는 행동은 하나님의 역사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시고 경계를 두지 않으십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의 이해를 세우고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서 아픈 자를 치유하시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귀신을 쫓고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야고보와 요한은 변모된 예수님 옆에 선 모세와 엘리야의 비전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누가의 초점은 바뀌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특별한 순간에 왔습니다. 여기, 오늘 우리들은 이야기에서 그는 방향을 바꿉니다. 우리가 듣는 첫마디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가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지금까지, 누가는 마가복음에서 발견할 수 있는 자료들만 적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제 그 자신의 자료를 사용할 뿐 아니라 자세히 알려지지 않은 자료이며 처음 세 복음서 모두에 공동으로 들어간 “Q”라고 불리어진 자료를 사용합니다. 이제 우리는 오직 누가복음에서 만 발견할

수 있는 이야기를 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잃은 아들의 비유, 이 두 가지 익숙한 비유를 듭니다.

그러나 오늘, 누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신다고 우리에게 이야기 합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의 지리적 여정의 의도에 관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지도에 예수님께서 다음 몇 장에서 어디에 가셨는지 핀을 꽂아서 보여준다면 그것은 그가 지그재그(갈지자)로 가는 것을 암시 할 것 입니다. 요점은 그의 사역을 위한 기초들을 놓습니다, 누가는 지금 그것 모두를 인도하기 위해서 직시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사마리아인 마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었습니다, 두 제자의 화난 반응과 함께 비난을 받고 즉석적인 저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세가지 상호작용이 뒤따릅니다. 이모든 이야기의 근본적인 내용은 많은 대가를 지불 해야 하는 제자의 속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 하게 하고.” 모든 사람이 어떤 종류의 새로운 삶이 그들에게 제공되었는지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선택은 문화와 시대의 관습으로부터 과격한 단절을 의미합니다; 가족의 의무들로부터의 단절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여정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그룹에 참여하는 것은 믿음의 새로운 공동체의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아주 빠른 학습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의무에 관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정보에 근거한 선택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믿는 그분과의 더 깊은 믿음의 여정을 위해서 불안정을 선택한 것을 아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연결되나요? 우리의 삶, 그리고 수 세기 사람들의 삶은, 안정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가족들이 직장이 있기를 바랍니다, 편안하게 살 장소, 심지어 처음 집을 사는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집을 처음부터 산다는 것이 얼마나 불가능하다는 것을 압니다. 저의 아들은 24 살에 저희 집에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의 아들에게 집을 떠나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많은 다른 사람처럼, 저의 아들은 그렇게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아마 더 이상 과거에 해온 것과 같은 가족의 의무들의 우선적인 감각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은 아직 까지도 많은 문화에서는 아주 중요하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저의 아들에 대한 저의 바램이, 만약 아들이 진정한

안정 없이 집을 떠난 다고 했을 때 깨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안정에 대한 필요와 제자도를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까요?

오늘 누가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누가복음이 우리가 있는 곳에서 이야기하는지를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누가복음은 바울이 연설한 것과 같은 복음서입니다, 물론 그는 예수님 부활 이후 부활의 관점,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과 함께 악을 극복하고, 고통과 죽음과 새로운 삶 안에서 자랍니다. 그것은 응답을 초청하고 이상한 자유를 가지고 있는 복음서입니다. 누가복음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세상의 많은 경쟁의 소리들 안에 우리의 가치가 무엇 인지를 묻고 있으며 선이 화에 의해서, 부당함에 의해서, 비인간적 그리고 학대에 의해서 사로잡혀 버릴 수 있음을 묻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읽은 것을 여러분과 나눕니다. “어떤 남자가, ‘당신은 정기적으로 기도 함으로 무엇을 얻을 수 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 남자는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무엇을 잃어 버리는지를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화, 자아, 탐욕, 절망, 불안 그리고 죽음의 불안 등 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기도의 답은 얻는 것이 아니고 잃어버리는 것 입니다; 최종적으로 그것은 얻는 것 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얼굴을 단호히 예루살렘을 향합니다. 그의 제자들은 그를 따르도록 요청 받았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무엇 때문에

요청 받았는지를 모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무엇을 그리고 누구를 믿습니까?

믿음은 흥미 있는 단어 입니다. 때때로 그것은 마치 완전한 승인과 우리마음의 동의를 주는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든 것을 체크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믿음의 말은 고대 독일어 사랑이라는 의미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요즘 독일어로는 리베 *liebe* 라는 말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만약 그것이 예수님 인지를 묻습니다. 믿음은 대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출발하는 것에 관한 것 입니다. 우리가 가진 작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감으로 커지기를 기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을 믿는 것 에 관한 것 입니다. 그것은 우리 손에 쟁기를 가지고 우리가 불안정해 하며 뒤를 돌아보고, 우리는 옳은 결정을 했는지, 또는 그전이 훨씬 나았었는지 궁금해 합니다. 만약 우리가 손에 쟁기를 지고 그렇게 했다면, 우리는 꾸불꾸불한 고랑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의 삶은 우리 자신 뒤에 꾸불꾸불한 발자취를 남길 것 입니다. 그러나 항상 신뢰의 상호조화,

믿음과 행동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유는 이것에 뿌리를 둡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랑의 기초로부터 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은 자비로우며 우리자신들을 선택하셔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행동의 엄격한 규칙들에 순종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에 관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세리주를 정원 헛간에 두는 것도 아니고, 또는 일요일 날 카드놀이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행복과 번영을 염려하는 것에 관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자신들을 위한 어떤 대가에서 옵니다. 예수님은 그의 얼굴을 단호히 예루살렘을 향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실천하시기 위해서 값비싼 선택을 직면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죽음과 암흑의 철조망으로부터 복음을 자유롭게 하는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습니다. 그는 순간순간 신앙 안에서 살았습니다. 우리 중 나머지 분들은 뒤쳐져있습니다, 때로는 비틀거립니다, 때로는 우리의 어깨 뒤를 보는 유혹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알고 있는 것이 바울이 묘사한 성령의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 것 인지를 아는 것 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고통 많은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자신들을
위해, 서로서로를 위해 성령의 열매를 믿기 때문입니다.